

제목: "어떻게 예배 할 것인가?" (2)

말씀: 요한복음 4장 21-26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후에 진리로 예배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 1) 참된 _____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 2) _____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 3) 삶이 _____ 되는 예배입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합계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지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 (북 아프리카 사역)
터어키	SILKWAVE 실크 웨이브 선교회 (이슬람권 사역)
한인 2세권 교회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교회 (New Jersey, USA)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요한복음 4장 21-26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ohn 4: 21-26 신약 148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2) 김성민 목사
 Message How could we worship God? Rev. Kim
- 찬양 183(172)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다같이
 Praise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임재 다같이
 Praise and Prayer The Presence of God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너무나 멋진 멀트노마 폭포)

2020년 새해가 시작 되며 비가 많이 온다. 물론 내가 살고 이는 이 곳이 다른 곳보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 한 달 같이 비가 많이 온 것은 오랜만이다. 한 달 동안 45일 만 해(Sun)가 보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오랜 만에 친구 목사가 동부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멀트노마 폭포(Multnomah Fall)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 폭포가 그동안 수 십 번을 가 보았던 폭포가 아이였기 때문이다. 폭포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멀리서도 크게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엄청난 양의 물이 구름을 가르며 저 하늘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구름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폭포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당연한 이유는 비가 그동안 많이 왔고 또한 그 때도 많은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비가 많이 오는 줄도 모르고 한 참 동안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진을 계속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비가 너무 오래 와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세상에는 그 비로 인하여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일들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와 같은 은혜를 늘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더욱 부어달라고 찬송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은혜의 단비를 늘 부어주셔서 체험하며 살다가 보니 은혜의 귀함과 감동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는 우리가 결단코 거부할 수도 또한 거부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시편 78편 23-24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신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과 충만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힘껏 받아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비가 많이 오는 서북미에서 사는 것도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된다.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또한 저녁에도 비처럼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길 만이 허무함과 외로움 그리고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길인 것이다. 그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길”이다.

멀트노마 폭포는 비가 올 때 가 보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이 많아야 절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5)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6)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 (천식, 심장문제)

터어키: 터어키 목회자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잘 건디도록

깊은 뿌리교회: 목사님 부부의 영적인 건강과 성령 충만함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2020 달력

새해 교회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한대로 가지고 가서 주위에 필요한 분들과 나누며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5. 생명의 삶

생명의 삶 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6. 2월 행사

사순절 시작 2월 26일(수)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